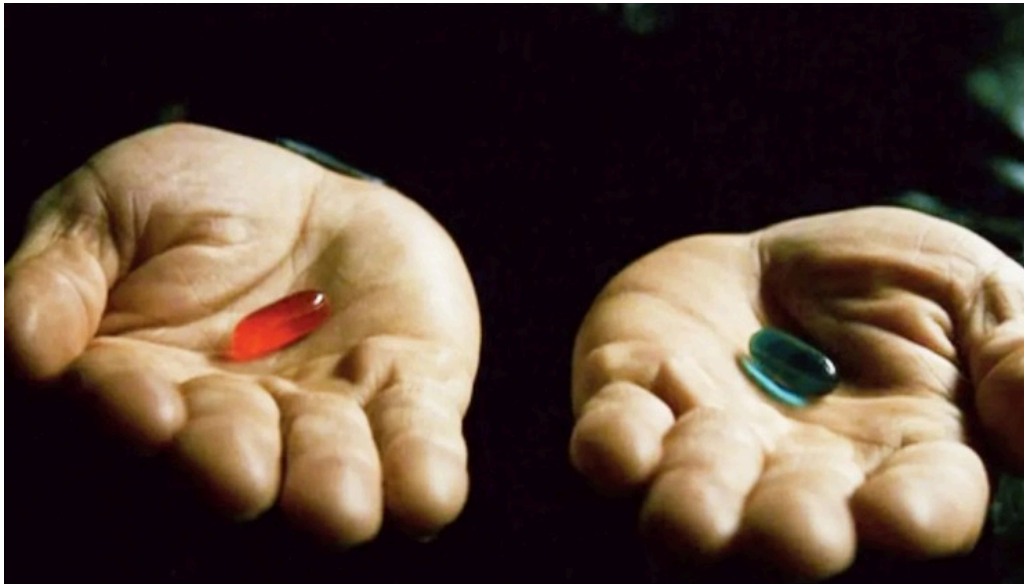


오랜만에 장문을 남긴다

있어 보이게 제목을 지어봤다

'레드필이 뭘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본다



이미지 출처

'레드필 이론'이라는 말을 유튜버 <용호수> 논란으로 처음 알게 됐다  
한국에서는 <레드필코리아>라는 유튜버가 해당 이론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나는 이 글 쓰고 있는 지금도 해당 유튜버가 정확히 뭘 가르치는지 모른다  
연애 잘 하고 싶은 사람 모아놓고 남녀 관련 '불편한 진실' 가르친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 '레드필'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영화인 <매트릭스>도 안 봤다  
그냥 어디서 레드필, 블루필 하면서  
현실 직시, 현실 외면을 대조하여 표현할 때 쓴다고 귀동냥으로 들었다

게임하면서 <슈카월드> 영상을 봤다

<https://youtu.be/immfrQMC8gc>

수명 10,000 년인 실존 동물, 스폰지밥



게임하면서 본 거라 사실 중간중간 기억 안 난다  
영상은 세 줄 요약하자면

스펀지는 사실 해면이라는 동물인데 수명 짱 깊  
다른 것도 수명 짱 깊  
생명이란 건 참으로 신비해이예이예이예이예이예이예

악뮤 노래 좋다

<https://youtu.be/sbc2yBheAbo>

AKMU -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HOW PEOPLE MOVE)' M/V



아무튼 영상 보다가 문득  
이게 나의 '레드필'이구나 싶은 몇몇 생각이 떠올랐다

우선 첫째로 인간은 생각보다 작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인간만 모아둔 군집 속에서 능력만을 놓고 줄 세우기를 해도  
나는 어디 중간 즈음에 있을 텐데

수명과 크기라는 측면에서 다른 생물과 비교해서 보면  
생물 외 모든 것들까지 포함시켜보면

인간도 생각보다 별 거 없구나

준내 큰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구나  
수많은 생물 중에 능지 원툴로  
지구 왕권을 쥐고 있는  
사실은 다른 생물들과 같이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숫자 100이 가장 큰 숫자라고 생각하던 어린아이가  
거듭제곱도 아니고 테트레이션, 하이퍼 연산 알게 되었을 때의 느낌이랄까  
그런 기분이 드는 듯  
최근에 <이방인> 읽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광강히 염세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글처럼 읽힐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다

인간은 대단하다  
난 지금도 매일 같이 감탄하며 산다

옴의 법칙이다 뭐다 해서 전압 전류 저항 어찌고저찌고  
이게 수많은 회로들이 되고  
전압으로 0과 1 표현해서 그게 가감산기가 되고  
중간 매우 많은 과정들을 생략하여  
컴퓨터가 되고  
게임을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고  
지금 내가 포스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 키보드로 텍스트를 타이핑하고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신기하다  
이걸 나와 같은 인간이 해냈다는 건 더더욱

기회가 된다면 원시 컴퓨터를 A부터 Z까지 만들어 보고 싶다  
42 스타일로 하면 ft\_primitive\_computer, ft\_dos  
이런 네이밍 과제로 하나씩 구현하면 되려나  
여하튼  
인간은 대단한 게 맞다

이 레드필의 복용 후기를 남겨보자면  
처음에는 많은 부분에서 혼란스럽고 복잡한 심경에 들게 하는  
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미약하게나마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하루 종일 바깥을 나다니며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가능성 중 하나라는 걸  
보다 명확히 느끼게 해주었다

같은 인간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생각보다 큰 자신감을 준다

그리고 또 다른 레드필 하나는  
굳이 자신의 생각을 '절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인생 전체로 확장하여 단정할 필요 없다는 것  
이건 영상이 주된 트리거가 된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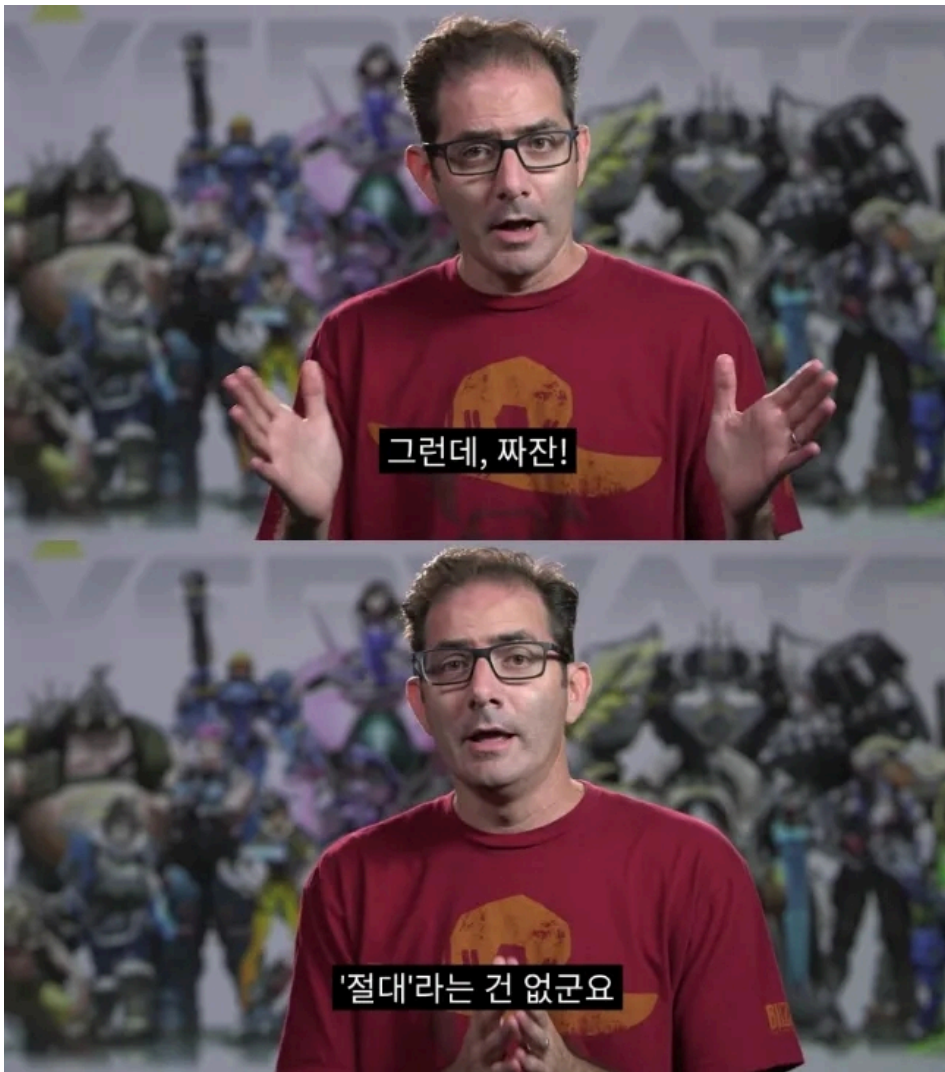
'나는 앞으로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는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분명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말인데  
감히 말하건대 대부분 사람에게 적절치 않은 말 같다  
절대란 없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찰나를 산다고 느낀다  
당장 오늘 내일 나의 생각도 미세하게 다르고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변한다  
애초에 둘을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여러 가치관과 생각이 둘을 이어주는 거고

자신의 삶에 너무 장대한 서사를 부여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찰மாக게  
그냥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고려하여 당장의 최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다

당연히 과거의 선택과 지금의 선택이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나의 최선이겠거니 생각하는 거지  
신념, 초지일관 다 멋진 말이지만 그건 과거의 나에 한해서만 해당되었을지도 모르니까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란 없다



[사진 출처](#)

어려운 코딩 테스트 문제 풀 때처럼  
 내 인생에 탐욕법이 최선인지,  
 DP가 최선인지,  
 브루트포스가 최선인지  
 충분히 고민 해보고 하나 선택해서 시도해보되  
 어느 시점 넘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뀌도 보고 다른 거 찾아도 보고 뭐 그런 거지

잘 고를 능력만 갖춘다면  
 선택지는 다다익선 아니려나  
 구태여 '절대'라는 말에 휘둘려서  
 자신의 영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다행인 게 인생은  
 코딩 테스트나 norminette처럼 엄격 근엄 진지 하기보다는  
 자비로운 평가 기준을 가진 선생님의 서술형 채점 같아서  
 일단 에러만 안 내고 결과만 나오면  
 어찌어찌 점수는 나오는 것 같다

사실 끝까지 가서 보면

애초에 점수에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 어쩌면 이 말과도 이어지지 않을까

결과란 그저 과정을 한 점으로 표현한 것이라서  
결과는 특정 측면에서 과정의 상당 부분을 대표하지만  
결과가 과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동진 아저씨 생각난다  
책과 영화, 작품과 평론 이것과 유사한 관계라는 느낌

근데 또 글 쓰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든다  
남들에게 일관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하다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과 상황이 제일 무섭다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대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용 등급 같은 것도 매기고 하며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넣어두는 것이겠지

신념을 만들고 독심 있게 지켜나가되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유연하게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거 없다  
쓰는 나도 모른다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냥 생각이 드니까 글 써 본 거지  
그냥 그런 거지  
진짜 거지



출처: MBC 베스트극장 587화 '형님이 돌아왔다 中

몸쓸 개그로 마무리